

화학산업 전력 소비량 5.7% 증가

전체 제조업의 22% 차지 ... 6월 고무·플라스틱 소비량 9.6% 증가

상반기 국내 고무·플라스틱 및 화학산업의 전력 소비량이 제조업 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4년 1-6월 화학제품 제조업의 전력 소비량은 2003년 1-6월보다 5.4% 증가한 106억 6900만kWh를 기록했다. 국내 제조업 전체 전력 사용량의 14.3%를 차지하는 규모이다.

고무·플라스틱 제조업의 전력 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3.7% 증가한 27억5500만kWh, 석유정제산업의 소비량도 3.8% 증가한 28억5300만kWh로 나타났다.

특히, 고무·플라스틱산업은 6월 한달 동안에만 전년동기대비 9.6% 증가한 4만5700만kWh의 전력을 소비해 증가율이 두드러졌다.

석유정제 및 고무·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산업 전체의 전력 소비량은 전체 제조업의 21.9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

화학산업의 소비 전력은 2003년 1-6월 154억500만kWh에서 2004년 1-6월 162억7700만kWh로 5.7% 증가했다.

전력 소비실적(2004)

(단위: 100만kWh, %)

구 분	6월				1-6월 누계			
	2003	2004	증감률	점유율	2003	2004	증감률	점유율
섬유의복	1,231	1,167	▽5.2	9.2	7,463	7,004	▽6.1	9.4
석유정제	478	486	1.5	3.8	2,729	2,853	4.6	3.8
화학제품	1,755	1,830	4.3	14.3	10,120	10,669	5.4	14.3
고무/플라스틱	417	457	9.6	3.6	2,556	2,755	7.8	3.7
1차금속	2,156	2,301	6.7	18.0	13,015	13,218	1.6	17.7
기타운송장비	223	252	13.2	2.0	1,337	1,457	9.0	2.0
가구/기타	124	124	▽0.4	1.0	834	834	0.0	1.1
재생재료	37	41	8.9	0.3	221	240	8.9	0.3
제조업 계	11,961	12,750	6.6	100.0	71,031	74,484	4.9	100.0

한편, 국내 제조업의 전력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 2003년 1-6월 710억3100만kWh에서 2004년 1-6월 744억 8400만kWh로 4.9% 증가했다.

6월 제조업의 전력 소비량은 119억6100만kWh로 6.6% 증가했으며 영상·통신(22.1%) 및 자동차(12.4%), 1차 금속(6.7%), 화학제품 (4.3%) 순으로 증가했으나 섬유산업은 5.2% 감소했다.

계약기준으로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2004년 1-6월 822억5800만kWh로 전년동기대비 5.2% 증가했다. <조인 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10>